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7월 16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0장 1-5절

설교제목 :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19장은 거룩의 주제를 선포하면서, 거룩의 주제 아래 다양한 율법을 다룹니다. 우리가 20장을 열기 전에 먼저 19장의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규정이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웃 사랑의 규례가 있습니까? 이러한 규례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율법들인데,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반드시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를 꿈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번도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대체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공동체 안에 이 꿈을 실현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행5:33-35) 적어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는 이런 공동체를 꿈꾸어야 합니다. 나만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잘 사는 교회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배고픈 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 공동체가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마25:34-36)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함께 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주고 나누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삶을 산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참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미래에 완성될 천국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앞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레위기 20장 역시 레위기 19장처럼 건강한 사회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율법들을 말씀하는데,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만일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레20:2, 4) 19장에 나온 율법은 그 율법을 못지킨다고 해서, 그 책임을 죽음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장의 내용의 특이점은 죽음으로 책임을 물라고 하십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행위(1-5절)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일(6절)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일(9절)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일(10절) -근친상간을 포함한 음란행위(11-15절)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16절) 이러한 범죄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죽음으로 책임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공동체이든지, 국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허용되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몰렉을 금지하는 율법입니다.(2절) 몰렉은 암몬사람의 민족 신으로 섬기던 우상입니다. 어린 자녀를 희생제물 삼아 불태우는 인신제사입니다. 몰렉의 형상은 얼굴은 소고, 몸은 사람의 몸입니다. 몰렉은 의자에 앉아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손을 밑에서 불로 벌겋게 달구어져 있는데, 그 손위에 어린 자녀들을 올려 태워 죽이는 제사입니다. 혹은 몰렉 신 가슴에 문이 있어서, 그 문 안에는 마치 지옥의 불같이 불이 타오르고 그 문을 통해서 그 불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 종교가 가진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신 가운데 판 신이 있습니다. 판신은 수염소 신입니다.(레17:7) 이 판신은 매우 음란함과 연결된 신입니다. 판신을 섬기는 자가 제사드리러 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좀 하면

그 신을 섬기는 사제와 성관계를 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아프로디테의 신전과 같습니다. 사제들이 신과 가까이 있기에 그들과의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제물이나 돈을 더 바치면 신과 직접 성관계를 하게 합니다. 그것이 수간입니다. 그때 제사드리는 자가 칼을 찹니다. 그래서 염소가 흥분하게 되면 염소의 목을 따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최고의 제사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핵심이 뭐니까?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성경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관점에서 설명하지만 그 근본 배경이 가나안 종교의 제의적 상황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17장 7절에서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에, 곧 이어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레 17:10) 이것을 더욱 확증해 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26-28절입니다. 피째 먹지말라는 규례가 이방인의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옵니다. 26-28절은 가나안 백성의 각종 종교적 풍습과 연결됩니다. 결국 피째 먹지 말라는 것 역시 가나안 백성의 종교적 풍습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판신뿐만 아니라 오늘 살펴보는 몰렉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렉 제사도 매우 음란한 종교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5절)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본문이 좀 한글번역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음란하게 섬긴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간음과 같다는 의미를 보여주지만 여기서 ‘음란하게 섬기다’는 것은 실제적인 창기의 행동을 하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몰렉제사도 매우 음란한 행위가 수반됩니다. 자녀들을 몰렉에게 내어줄 때 그들이 집단 윤간을 당하게 됩니다. 몰렉 제사를 바칠 때, 자녀들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종교의 음란한 예식으로 인해 사제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원치 않는 자녀들이 무수히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들을 처리하는 것이 몰렉제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풍습입니까? 따라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몰렉 제사와 낙태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행복과 인생을 위해서 원치 않는 자녀들을 지우는 것이 현대판 몰렉 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딸을 몰렉제사를 위한 창기로 바치기도 했습니다.(레19:29) 부모들이 자신의 딸을 이방 신전의 성창으로 바치는 행위들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몰렉에게 내어주는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내어주듯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이 땅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세상에 그대로 내어줍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백성들마저도 자녀를 세상에 그대로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성공과 풍요와 쾌락을 위해 세상에 내던져지는 자녀들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을 각오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지켜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공동체와 우리의 국가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레위기 20장에서 죽음으로 책임을 물으라는 범죄는 무엇이며 죽음으로 책임을 물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20:1-16)
- 2) 몰렉이란 신이 어떤 신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